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4월 21일(음력3월 3일) 수요일 (주간) 제470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조계종

"조계종 관련 각종 고소 · 고발 건이 없으면 별로 할 일이 없을 겁니다."

불교계 한 관계자가 조계종 총무원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들렀다가 경찰서 한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하소연이다.

삼보정재 낭비 뿐 아니라 불교계 위상을 추락시키는 각종 고소 · 고발 건이 조계종을 괴롭히고 있다. '폭력'으로 뜻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는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절집' 내부의 문제를 각종 사회법에 제소하는 '습'은 여전히 조계종의 병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위상 추락 · 정재 낭비 '사회법 기대기' 이제그만!

매년 10건 이상 소송 제기
총무원 "해종행위 강력 대응"
"법 · 제도 원칙 집행" 주장도

최근만 해도 원융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무효' 소송(1심 계류 중)과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소송(2심 계류 중)을, 홍선 스님은 '범어사 주지임명 절차이행금지가처분신청'과 '범어사 주지후보자 확인 및 임명 절차 이행' 소송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4월 14일 총무원장 이름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어사 문중 내 극히 소수의 해종행위자들이 종단의 권위와 안정을 해치는 소송을 제기해 종단 내 종헌질서에 이해가 부족한 법원의 눈과 귀를 막고 종단의 자율적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단의 결정을 받아 종단을 훼손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며 "해종행위자들이 더 이상 종단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일련의 종단 관련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처럼 종단 내부의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발행한 〈98 · 99년도 종단소송판결문 모음집〉에 따르면 당시 '총무원장직무대행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무원장직무존재확인' 등 총 18건의 종단 관련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5~6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종단 뿐 아니라 사찰과 스님을 상대로 사회법에 제기한 소송이 매년 10건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2배가 넘은 20건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개혁 이후 역대 종단 집행부들은 종단 내부의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해종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조계종 기획실장 여연 스님은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 소송 합의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부산물' 때문에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외에도 집행부 흔들기를 통한 개인 또는 집단의 종단 내 영향력 확대 기도와 소송제기자들에 대한 집행부의 징계 미온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홍선 스님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정야 스님(부산 선암사 주지)은 "그간의 종무행정이 원리원칙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종단 내 사법기관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헌 · 종법 등 각종 법적 · 제도적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삼보정재 낭비는 차치하더라도 조계종 뿐 아니라 불교계 전체 위상이 추락하기 때문이다.

또 종단 대표가 소송에 휘말릴 경우 대정부 교섭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등 '내부출혈'이 심각할 수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종단 관련 소송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종단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못 박으며 "무관심의 장막을 걷어내고, 이해관계를 떠나 내부에서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승가그룹이 형성돼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자의원 28명 제17대 총선 당선자

개신교 117명 가톨릭 61명

제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총 299명중 불자국회의원은 모두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종교가 불교라고 밝힌 불자는 16명 이었으며, 나머지 12명은 전화로 확인됐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83명, 2000년 16대 총선 43명 보다 적은 수치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117명, 가톨릭이 61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93명은 원불교 등 다른 종교 또는 무종교인이거나 종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다음은 이번에 당선된 불자 국회의원 명단이다.

열린우리당(8명) △정봉주(서울 노원 갑) △최재성(남양주 갑) △이광재(태백 · 영월 · 평창 · 정선) △이용희(보은 · 옥천 · 영동) △이영호(강진 · 완도) △강창일(제주 · 북제주 갑) △이은영(비례대표) △윤원호(비례대표) **한나라당(18명)** △김병호(부산 부산진 갑) △주호영(대구 수성을) △이명규(대구 북 갑) △이해봉(대구 달서 을) △정갑윤(울산 중) △최병국(울산 남 갑) △엄호성(부산 사하 갑) △이계진(원주) △정문헌(홍천 · 횡성) △홍문표(홍성 · 예산) △김태환(구미 을) △이덕모(영천) △장윤석(영주) △이인기(고령 · 성주) △안홍준(마산 을) △김재경(진주 을) △김학송(진해) △박세일(비례대표) **민주노동당(1명)** △조승수(울산 북).

5개국 출 · 재가 순례단
"한반도 평화 기원"

일본 일련종 니치키(日歸) 스님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5개국 출 · 재가자 8명으로 구성된 평화순례단이 4월 15일 부처님 사리와 함께 경기도 연천 호국통일사를 방문했다.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과 한국종교연합 대표 진월 스님도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통일대종을 울렸다. 사진=박재완 기자

"상생과 희망 정치 기대"
조계종 총선 관련 논평

조계종은 4월 16일 총선 관련 논평에서 "상생과 희망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조계종은 논평에서 "투표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화합과 상생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달라는 주문"이라며 "여당이나 야당 모두 17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명확하게 인식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공식 출범
5월 7일 조계사서 통합대회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5월 7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통합대회를 갖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로 공식 출범한다.

대회는 1부 통합선언과 2부 통합신도회 핵심사업 발표, 3부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2부에는 신도대중의 의지와 바람을 담은 '종단에 드리는 건의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양 신도회는 일관성 있는 신도운동과 재가불자 정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지난해 3월 통합에 합의했다. 이후 통합추진위를 구성, 통합신도회의 나아갈 방향과 신도회의 정체성, 신도조직 등에 관해 수차례의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의견조율을 해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비전 있는 현대불교에 오십시오

불교 정보의 총본산 '현대불교'가 내일을 이끌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부문
경력: 취재기자 ○명, 출판 · 인터넷 부문 ○명
수습: 기자 ○명

■응시자격
① 불교신자 ②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남자는 수습기자의 경우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병역면제 남자 또는 여자는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04년 4월 22일(목)까지
2. 접수방법
인터넷 일간 붓다뉴스(http://www.buddhanews.com)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E-mail(cgseo@buddhapia.com)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제출서류는 돌려드립니다)
4.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737-8881)

'할'

그림 · 조태호

- 지환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불교정보 총본산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02)737-0090

도법 · 수경 스님의 생명 평화 탁발순례단 지리산권 순례 회향 동행기 6면

선원장 초청 대법회 현웅 스님 4월 25일 오전 10시 조계사

마하몰(www.mahamall.co.kr) 봉축캐릭터 용품전

마하몰에서 전화와 인터넷으로 봉축용품을 준비하세요!! 상담 및 주문전화 02) 732 - 1520

■봉축현수막 : 나염
90cm×6m (40,000원)
90cm×7m (45,000원)
90cm×8m (50,000원)

■봉축현수막 : 세로
90cm×6m (60,000원)
90cm×7m (70,000원)
90cm×8m (80,000원)

■지하철현수막
105cm×200cm (40,000원)
※현수막 크기, 내용은 변경가능

※ 기타 현수막 사이즈 주문가능

■장엄번(만장기)
90cm × 210cm (40,000원), 90cm × 230cm (45,000원)

■봉축버튼
3,200원
※8개 1세트

■봉축티커세트
30,000원
※100매 1세트

■봉축풍선세트
30,000원
※100개 1세트(대롱 포함)

■성인용/아동용선캡
3,000원

■자외선 차단 선캡
6,000원

■차량용 깃발
4,000원, 20×30cm

■큐방 연꽃 차걸이
3,600원
재질 : 마블
색상 : 노랑,분홍, 연두,보라,오렌지

■연꽃전등(大)
50,000원
15cm(높이)×13cm(넓이)

■연꽃전등(中)
35,000원
15cm(높이)×17cm(넓이)

■연꽃리본
일반 : 25,000원
고급 : 35,000원
노랑,연분홍,연보라
※100개 1세트

■캐릭터비닐만월등
32cm × 32cm
분홍,빨강,파랑, 노랑,초록,색상별

■캐릭터 청사초롱
4,000원 고급 본염 인쇄 ※최소주문수량 100개

■어깨띠 2,500원
※100매 이상 사찰명 인쇄가능

지면에 광고된 상품 외에 보다 많은 봉축용품을 인터넷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